

신과학운동

(신과학연구회(김두철 외 10인)편 / 범양사 / 1991)

이춘환

I.

‘신과학운동’이란, 이 책의 ‘책머리에’ 글을 빌리면,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 등지에서 일기시작한 ‘새시대 과학’(New Age Science)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과학의 소개가 아니고, 현대물리학을 근거로 한 새로운 세계관을 들고나와 핵전쟁의 공포, 자연환경의 오염과 기성문명의 비리에서 벗어나 새 문명을 찾자는 운동이다.

20세기에 들어 엄청난 속도로 과학이 발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에는 인간이 상상속에서만 가능하였던 것들이 과학의 발달로 이제 현실이 되어, 지구밖으로 우주가 인간의 활동무대에 포함되었고,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물의 형질을 변경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자연현상 특히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정교하고도 오묘한 생명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보잘 것 없다. 현대과학기술은 자연의 관찰에서 단지 소수 단편적인 지식들을 이해하고 응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는 자신이 없는 겁장이의 생각이라고 일축하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이와같은 무신론자들의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과학주의'라고 부른다.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달은 과학주의자들의 믿음을 더욱 더 굳건히 해주고 있으며 인간의 유전정보를 모두 해독하면 생명의 신비도 풀릴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신과학운동은 종래의 '과학주의'의 변형으로 보이며, 다루는 영역이 종래의 과학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던 영혼과 신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깊이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신과학운동이 초현실적인 영역을 무신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려하고 그러한 생각이 메스미디어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운동 및 이러한 사고의 확산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과학운동을 소개한 이 책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철학, 문학, 공학 및 정치학을 하는 11인의 학자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새물결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 공부하고 토론한 결과를 모은 책이다. 내용 중 일부 현대물리학적 접근은 어렵고 딱딱하여 보이나 종교계를 제외한 여러분야의 학자들의 시각에서 긍정적인 비판형식으로 다루어져 있어, 신과학운동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신과학운동을 잘 아는 전문인이 아니므로 서평이라기 보다는 이 책을 읽고, 비전문인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적어 보려 한다.

II.

이 책은 총 498쪽으로, 10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각각에 대한 참가자들의 토론내용이 153쪽에 걸쳐 있으며 그 뒤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부록으로 신과학의 개관을 볼 수 있는 저서들이 발췌, 번역되어 있다. 부록I은 신과학의 개념이란 제목으로 1975년에 출판된 「The Tao of Physics」와 1982년에 출판된 「The Turning Point」의 두 권의 책에서 발췌한 것들을 싣고 있으며, 부록II는 신과학운동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7권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싣고 있다. 부록에 소개된 책들은 앞의 주제발표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의 구실을 한다.

주제발표의 제목은 1) 신과학운동에 있어서의 기저개념의 타당성, 2) 거시법칙과 미시법칙, 3) 신과학운동: 신발끈 모델의 열개와 ‘벨 정리’의 뜻, 4) 진화의 시스템이론, 5) 기철학의 재조명, 6) 끝이 없는 시간과 공간-열려 있는 우주 속에서의 물리학과 생물학, 7) 타분야에 대한 신과학 개념의 적용 문제, 8) 생물에서 본 세계, 9) 신과학운동의 사회적 성격, 10) 신과학운동의 의의이며,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을 포함하여 필자가 이해한 내용을 위 순서에 무관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우선 현대문명의 밑바닥에는 뉴턴의 기계론적 물질관과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깔려있어서 자연과 인간을 잘못 풀이하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병폐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고전역학의 결정론적인 성격은 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에도 기계적 결정론적 또는 힘의 개념이 도입된 세계관을 갖게 하고, 현대사회에 은연중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예로 몽테스키외의 분리하여 균형을 취한다는 3권 분립의 취지는 뉴턴의 역학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그러나 타 학문에서 고전역학점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였던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였

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에서의 과학과 사고는 사물을 쪼개고 쪼개서 그 분할된 것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하고 그 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자연과 정신, 객체와 주체, 야만과 문명, 생산과 소비로 분리한 대칭적 논리를 사용하여 세계를 환원주의에 의하여 이해하고 조작되게 하였다. 그 이후 진화론의 출현과 전자기학의 발달로 자연은 복잡 미묘함과 동시에 이해가능한 대상으로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계론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스스로의 윤리 체계를 세우지 못하였고, 마음의 수련이 등한시 되어 현대문명은 소아 심리에 거구의 육체를 가진 괴물이 되어버렸고 여러가지 병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 상대성이론, 양자론, 열역학 제2법칙 등 새로운 현대 물리학에서 알려진 바와같이 미시의 세계의 연구결과로 입자는 파동성을 가짐과 동시에 입자성을 띠며, 입자의 세계는 불확정성원리가 적용되는 확률의 세계로서 과학적 관찰이 순수한 객관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물질의 세계는 분할한 것들로만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루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유기체적 우주관이 출현되었다. 이제 과학은 분석의 방법으로 직선적인 인과율만을 탐구하지 않고 전체를 다루며, 부분간의 상호관계, 피이드백 과정의 비인과적관계도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적 사고의 변화로 과거의 과학에 근거를 둔 결정론 및 주객이원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우주를 전체가 하나로 긴밀히 연결된 유기체이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적(動的)존재로 보는, 유기적(有機的)이고 전체적인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과학운동의 주장이다. 이러한 전체를 다루는 신 사고는 동양철학과 일맥상통하는 점도 보인다. 고전역학의 개념을 타학문에서 적용하여 보려는 노력이 실패로 끝났듯이, 현대물리학의 개념도 타 학문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 그러나 우리가 뉴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고에 젖어 있듯이 새로운 물리학의 개념은 다의화(多義化)되고 비논리화 되면서 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문명에서 심신의 불균형은 300여년의 오랜기간 동안 결정론적 고정관념에 집착함으로써 고질화 되었다. 또한 고전과학에서 과학이 과학이기 위하여 객관성을 매우 강조하여 왔으며 주관적 가치가 등한시 되었다. 그래서 과학이론은 수량적인 면만을 다루고 수식으로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과학문명이 중세의 윤리 체계는 시들게 하였으나 스스로의 윤리관을 세우지 못하였고,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풍요로움에 따른 소비성 생활에 젖고, 미국의 전후 세대는 청교도적인 근로 윤리의 의미를 이제는 모르게 되어 자본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흔들리고 가치관의 위기, 인간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현대의 기술적인 조직사회에서 인간 개개인은 익명화되고 삶과 현실환경의 괴리 또는 차단을 경험한 젊은 세대는 삶의 해방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러한 움직임은 전후의 히피, 흑인 민권 운동, 반문명운동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960년대 후반의 분위기에서, 세계를 전체로서 동적인 균형을 이루는 유기적 체계로 보는 신과학운동은 대중 속에서의 환경운동, 반핵운동, 여성운동과 결부되어 대중의 가치관을 바꾸고 생활태도까지 크게 바꾸어 가고 있다. 현대물리학의 새로운 시각은 초현실적인 신비주의에까지 강한 관심을 보이게 되어 신과학운동은 새로운 종교로까지 흘러갈 가능성을 보인다(이 책은 신과학운동의 신비주의적 입장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음).

III.

이 책을 통하여 신과학운동이 무엇이며 그 배경을 주제발표와 여

러 분야의 학자들의 토론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리학의 이론이 언급되는 부분은 필자도 많은 부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토론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토론 내용이 일부 산만하고 주제를 벗어난 내용이 있어 보이나 대화식이라 친근감을 준다는 장점도 있고 부록에 원전들의 발췌본들을 참조할 수 있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신과학운동은 뉴턴의 기계론적 물질관과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 기초를 둔 현대문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자는 운동이지만, 그 기반이 되는 현대물리학과 동양적 신비주의와 일치(parallelism)한다고 보는 견해는 학문적으로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함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한 견해가 신비주의적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영적문제에 대한 비기독교적인 사고가 기독교인을 포함한 대중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독교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이 영적문제를 그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는 당연한 노력으로 볼 수 있고, 창조를 부인하며 진화론을 기정 사실화 하고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솔깃하고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다. 독자는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만을 듣고 신과학운동을 단순히 좋지않은 운동으로만 보고 경원시 하기 보다는 기독교인들도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이 지적하는 현대문명의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이 신과학운동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신과학운동에서 지적한 현대문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대안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는 「기독교 대학」(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월보) 81호의 '뉴에이지 운동이란 무엇인가?'(김성수, 고신대)등의 기독교적 입장에서 쓰여진 글을 참고하기를 권한다.